소나무 조각으로 태어난 '33 비천'

목조각장 허길량 개인전
1월 8일~16일 예술의 전당서


소나무를 통으로 조각한 허길량 씨의 바라주비천. 천상과 불국토의 세계에 주악을 울리는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바라주비천, 다공양비천, 소과공양비천 등 33비천상이 소나무 조각으로 탄생했다. 목조각장 허길량 씨의 두 번째 전시 '소나무 비천이 되어' 展이 1월 8일~16일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10년만에 전시회를 여는 작가는 한 점 한 점 하나의 소나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작품을 완성했다. 수명이 천년 이상 간다는 국산 소나무를 이용해 도리천 중 33천을 의미하는 목조각 기법으로 작품을 탄생시킨 것이다.

"지름 80cm 가량의 소나무를 통째로 깎았어요. 비천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너무나 정교하게 작업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따로 따로 조각해 이어 붙이고 싶은 유혹도 있었지만 통나무 원형 하나로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겠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작가는 소나무의 질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일절 사포 사용을 배제하고 예리한 조각도의 칼날만을 이용해 질감 처리를 했다. 또한 완성후에도 생 옻칠을 수회 반복해 도장작업을 하여 소나무와 옻칠의 환상적인 만남을 통해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끌어 냈다.

비천은 천상과 불국토의 세계에서 주악을 울리고 춤추며 불보살님과 선지식인들에게 공경과 찬탄하는 마음을 일깨운다. 미묘한 소리와 진귀한 맛, 향기로운 향, 형형색색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 모두의 모습들이 허 씨의 손기을 타고 살아 숨쉬는 듯한 목조각으로 탄생한 것이다. "33 비천상은 그 자체가 워낙 오묘한 형상이기 때문에 작업 과정이 난해했죠. 생명력과 자비로움을 불어 넣어 품격 있는 형상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의 싸움에 몰두해야 하는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작가는 목조각을 하는 장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요즘 조각하는 분들이 청동을 많이 해요. 목조각보다는 훨씬 쉬우니까요. 점점 목조각을 배우겠다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몇 배의 정성을 불어넣어 목조각을 완성하고 나면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불교 교리에 맞게끔 작품을 완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다보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허 씨는 15세의 나이에 목공예에 입문 서수연 이인호 선생으로부터 불화와 단청 작업을 사사받았다. 1980년 우일 스님 문하생으로 입문하 도상 의식기법을 전수받았으며 200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으로 지정받았기도 했었다. 2002년 '33 관음 속으로 개인전' 을 개최했다.

앞으로 작가는 뉴욕 일본 등 순회 전시를 통해 33 비천상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려나갈 계획이다. (031)945-001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넓고 고요한 진리의 바다여!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② 최치원과 해인사 下





최치원은 해인사 홍류동 계곡에서 시를 읊었다. 사진 왼쪽은 최치원 영정 경북유형문화제166호 (청도경주최씨종중 소장) 사진 오른쪽은 해인사목조희랑대사상 보물제999호.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으리

결핍과 갈망이 시를 낳는다고 했던가? 최치원은 철저히 세속을 버리고 싶었기에 홍류동 깊은 계곡에 묻혀 살면서도 물소리로 온 산을 에워싸 세속의 시비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려 했다. 그 적극적인 표현은 둔세의 극치를 보여준다.

승호막도청산호(僧乎莫道靑山好)
산호하사갱출산(山好何事更出山)
시간타일오종적(試看他日吾踪跡)
일입청산갱불환(一入靑山更不還)

스님, 청산이 좋다 말하지 마오
산이 좋으면 무엇 하러 나오겠소.
두고 보라, 훗날 나의 자취를
한번 청산에 들면 다시는 나오지 않으리.

이 시는 '산승에게(贈山僧)' 혹은 '입산시(入山詩)' 로 구전되어 오던 것인데, 지금은 부산 해운대 '고운선생동상시문' 에 함께 새겨져 있다. 입산수도를 서원한 승려들이 가끔 산문 밖으로 일을 보러 나다니는 것을 두고 '산이 좋으면 왜 나다니느냐' 고 물으며 자신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다지고 있다. 그러한 둔세의 의지는 물소리로 온 산을 에워싸서 세속의 시비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마음과 그대로 이어진다.

최치원은 가야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곳을 유람했다. 경주 남산과 부산 해운대, 지리산의 피아골과 쌍계사 등지에 발길 닿은 흔적이 전한다. 명승지를 찾아다니며 울적한 심사를 달랬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최치원은 엄청난 양의 글을 지었고, 그가 관심 보인 분야도 유학은 물론 불교, 역사, 풍수지리 등으로 광활했다. 특히 부친이 창건에 관여한 것으로 전하는 숭복사의 사적기인 대숭복사비문과 쌍계사 진감국사비문, 봉암사 지증국사비문, 성주사 낭혜화상비문 등의 비문은 '사산비명' 이라 하는데, 그 문장과 학식이 돋보이는 불세출의 명문이다. '사산비명' 이 없었다면 9세기 신라 불교의 진면목을 살필 수 있는 기록도 없을 것이다.

해인사가 화엄종 사찰이기도 하지만 최치원은 화엄종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부석존자전' '석순응전' '석이정전' 등의 전기 작품을 썼다. 부석존자는 의상 대사의 별칭이고 순응과 이정은 해인사를 창건하고 발전시킨 주역들이다. 이들 전기가 오늘까지 전한다면 해인사의 창건 초기 역사는 한층 명백해질 것이다.

희랑의 화엄강론 찬탄

최치원이 홍류동으로 들어와 해인사 스님들과 교유할 때, 해인사에는 화엄종장으로 일컬어지는 희랑(希朗)과 관혜(觀惠) 스님이 있었다. 당시는 신라의 국운이 쇄약해지면서 견훤과 왕건이 세력을 키워나가는 때였는데, 희랑은 왕건을 관혜는 견훤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최치원은 희랑과 더 깊게 교분을 가졌는지 〈화엄경〉을 강의하는 희랑을 위해 지은 시 6수가 전한다.

마갈제성광편조(磨竭提城光遍照)
차구반국법증요(遮拘盤國法增耀)
금조혜일출부상(今朝慧日出扶桑)
인득문수강동묘(認得文殊降東廟)

마갈타성에 광명이 두루 비추었고
차구반국에 불법이 더욱 빛났네.
오늘 아침 지혜의 해가 부상에 떴으니
문수보살 동묘에 강림했음을 알겠네.
– '희랑화상에게' 제3수 〈가야산해인사고적〉

6수의 시 가운데 세 번째 시다. 최치원은 인도의 불법이 신라의 희랑에게로 전해져 그 법이 빛나고 있음을 찬탄하고 있다. 앞의 두 구는 인도에서 불법이 흥하는 모습이고 뒤의 두 구는 해인사에서 희랑이 화엄학을 일으켜 문수보살에 비견됨을 강조하고 있다. '마갈제성' 은 마갈타국이니 부처님이 정각을 얻은 곳이다. 차구반국도 차구가국(遮拘迦國)이라고도 하는 나라 이름인데 〈개원석교록〉7권에 따르면, 그곳의 국왕이 대승불교를 좋아하여 반야(般若) 대집(大集) 화엄(華嚴) 등의 경전을 봉안하고 전독(轉讀) 법회를 열었다고 한다.

제3구의 '부상' 은 동해 바다에 떠 있다는 전설의 나무[神木]다. 그러므로 '지혜의 해가 부상에 떴다' 는 표현은 동쪽 나라인 신라에 지혜의 해가 떴다는 표현이다. 이는 제4구에 나오는 '동묘' 와 호응하는데, 동묘는 동쪽의 사원 즉 해인사를 의미한다. 이 두 구절을 정리하면 희랑의 화엄학 강론이 문수보살이 강림해 불법을 설하는 것과 같다는 극찬인 것이다. 찬탄은 다음 수에서도 이어진다.

천언비교종천수(天言秘敎從天授)
해인진전출해래(海印眞詮出海來)
호시해우홍해의(好是海隅興海義)
지응천의위천재(只應天意委天才)

진실한 말과 비밀한 가르침을 하늘에서 주었고
해인의 진리가 바다에서 나왔네.
훌륭하여라, 바다 구석에서 깊은 뜻 일으켰으니
그야말로 하늘의 뜻을 천재에게 맡겼네.
– '희랑화상에게' 제4수 〈가야산해인사고적〉

세 번째 수에 이어 네 번째 수에서 최치원은 희랑과 그가 강론하는 화엄경의 진수를 보다 확연하게 설명하며 찬탄한다. '해인' 이란 '해인삼매' 이니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할 때 들었던 선정이다. 풍랑이 멈춘 바다에 만물이 비춰지듯, 일체의 번뇌가 소멸한 선정 속에서는 일체의 법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다. '진전' 이라는 말 역시 진리를 뜻하니, 화엄경과 해인삼매 그리고 해인사라는 절의 이름이 모두 한 통속이다. 진리의 바다는 넓고 고요함을 최치원은 매우 포괄적으로 내비치는 것이다. 이렇게 화엄의 법을 찬탄하고 뒤에 이어 그 법을 강론하는 희랑의 덕화를 '하늘이 뜻을 맡긴 천재' 로 승화하고 있다.

세상을 피해 가야산 홍류동 계곡으로 들어 간 최치원. 정말 그는 신선이 되었을까? 농산정 앞 계곡물은 오늘도 온 산을 에워쌀 기세로 힘차게 흐르고 있다.

마가 스님 BTN 치유콘서트 진행
'마음 꽃이 피었습니다' 1월 13일 첫 방송



이 시대의 힐링 멘토 마가 스님이 BTN 치유콘서트 '마음 꽃이 피었습니다' 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1월 13일 첫방송을 앞두고 있는 '마음 꽃이 피었습니다' 는 참 행복의 시작을 이끌어주는 힐링 프로그램이다.

마가 스님은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식의 15분 미니강연을 시작으로 출연자들과 본격적인 마음치유 시간을 갖는다. 여기에 마인드 힐링 전문가 '윤재진' 선생이 함께 해 좀 더 진솔하고 깊이 있는 치유를 진행한다.

방송은 △내 마음 바로보기-나 자비명상 △가족의 의미 깨닫기-가족 자비명상 △소통과 공감 배우기-동료, 인간관계 자비명상 △자비와 사랑으로 채우기-용서 자비명상 등으로 꾸며지며 6개월 동안 총 24회 방송된다. 방송은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 수요일 오전 4시 · 목요일 오후 8시 · 일요일 오후 2시다.

내 마음을 바로 보고 원망과 미움을 지우며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자 한다면 마음공부의 문을 두드려 보자.

정혜숙 기자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를 만난 클래식'
JK챔버오케스트라 권혁주 협연… 1월 19일



방학을 맞아 가족콘서트 '영화를 만난 클래식' 의 무대가 펼쳐진다. 지휘자 김의명이 이끄는 JK챔버 오케스트라와 권혁주가 협연하는 이 공연은 1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아카사엔터테인먼트(대표 강형진)가 기획한 이 공연은 파가니니 무반주 카프리스 24개 전 곡을 전국 순회 연주했던 권혁주가 무대에 올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JK 챔버 오케스트라는 영화 속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가족 콘서트 '영화를 만난 클래식' 을 연다. 연주자 중 바이올리니스트인 유지연이 직접 영화와 클래식을 이야기하는 무대도 마련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영화 '엘비라 마디간' '파리넬리' '시네마 천국' 과 '미션'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과 우리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등의 음악도 연주된다.

지휘 김의명,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피아니스트 김성연, 소프라노 임세라, 카운터테너 이재희 등이 무대에 선다. 티켓은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이다. (02)2157-0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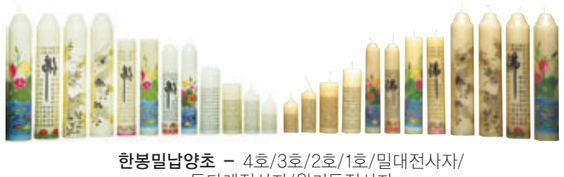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 (7.4ø×29㎝)




한봉밀납양초 – 4호/3호/2호/1호/밀대전사자/돈타레전사자/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약쑥1호예술연꽃양초/야광 연꽃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3, 64번째 저서 출간!



바로보인 천부경

1986년 5월 15일, 당시 단군선양회를 이끄시던 안호상 박사님과 김경수 참의원님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즉석에서 현토하고 설했던 것을 1997년이 되어서야 출간하였다.

이 책에는 삼부경인 천부경, 교화경, 치화경이 함께 실려 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혜안의 통찰력으로 밝힌 우리 조상만의 사상, 인류를 선구적으로 이끈 자랑스러운 봉화적 역서, 삼부경!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신간! 바로보인 간당론(看堂論)

이와 같은 도리에서 적시적소에 맞게 주장자를 쓴다면 반드시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한 번을 쳐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두 번을 쳐야 할 때가 있으며, 또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세 번을 쳐야 할 때가 있다. 그러한 법리를 모르고 주장자를 친다면 눈먼 주장자라 하는 것이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가 일체 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 보였다.

정맥선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www.zenparadise.com